

왜 때가 되면 반드시 선물을 주고받나요?

일본에서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한 해 두 번 선물을 주고받는 풍습이 있으며, 이 같은 풍습은 과거 가족들의 종교적 행위에서 시작되어 지금은 개인의 사회적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행해지고 있음

1. 선물을 꼭 챙겨야 하는 때는?

- 일본사람들 역시 평소에 다양한 이유로 선물을 주고받지만, 대부분이 사람이 일 년에 두 번 특별하게 친지나 주변사람들과 선물을 주고받는 풍습이 있음
- 여름에 선물을 보내는 오추겐(お中元)과 겨울에 보내는 오세보(お歳暮)가 있음
 - 오추겐(お中元)은 원래 중국에서 전해진 풍습으로 음력 7월 15일이지만, 지금은 양력 7월 초부터 15일 사이에 친지나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사람, 직장 상사 등에게 선물을 보냄
 - 세보(歳暮)란 한해의 끝날 무렵을 뜻하는 세밑을 의미하며 오세보(お歳暮) 선물은 주로 12월 초순에서 중순경에 서로 주고받음
- 오추겐(お中元)과 오세보(お歳暮) 모두 원래는 신에게 공양을 하는 가족과 친지들 간의 종교적 행위에서 시작되었으나, 지금은 평소 도움을 받은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현대적 풍습으로 바뀌었음

- 과거 일본의 사회가 가부장제, 혈연, 신분 등에 얽매었던 시대에서 점차 개인의 사회적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해지면서 이 같은 풍습이 생겨난 것으로 보임

2. 해서는 안 되는 선물

- 흰색은 죽음을 뜻하기 때문에 선물할 때는 각별히 조심해야 하며 특히 흰색 포장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음
 - 흰색 꽃 역시 죽음을 연상하는 가장 상징적인 것이므로 선물로는 적절하지 않음
- 일본사람들은 보통 칼과 빗도 선물하지 않음
 - 일반적으로 칼은 자살을 떠올리기 때문이라고 하며, 빗은 구시(くし)라는 발음이 괴롭게 죽는다는 뜻의 고사(苦死)와 같아 주고받는 선물로 적합하지 않다고 여김

3. 잊어서는 안 되는 답례

- 반드시 선물을 받았다면 답례를 해야 함
 - 이웃으로부터 초대를 받아 선물을 들고 방문했다면, 거의 예외 없이 초대했던 이웃이 받았던 선물과 비슷한 가격의 답례 선물을 들고 며칠 뒤에 찾아옴
 - 일본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받은 선물을 일반적으로 언젠가는 갚아야 할 일종의 빚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답례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임
 - 그래서 선물을 서로 주고받는 조토(贈答)라는 일본특유의 선물문화가 만들어졌음